

회 의 록

회 의 명	산재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개선 연구 공동연구 정례회의 (1)
일 시	'21. 5. 4.(화) 14:00~17:30
회의 장소	인천병원 3층 회의실
참 석 자	- (근로복지연구원) 이승욱 재정사업연구부장, 이은혜 전임연구원 - (재활공학연구소) 신무현 제작실장, 양철호 제작기사, 천성민 제작기사 - (인천병원) 이강표 재활의학연구센터장, 한미향 진료과장, 조소혜 연구간호사
회의 내용	○ 산재보상보험법 중 재활보조기구 관련 개선안 도출 - 물건 지급여부 확인에만 치우친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리체계에서,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철학적 선언 필요 - 지급시기 : 요양종결 전 지급 필요 - 지급 물품의 제한 : 1명->1장에->1물품 (X), 사회/직장복귀시 필요한 다양한 물품 지급 (O) - 아급성기 재활요양시기의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: 기능상태의 변화, 환자의 욕구의 구체화가 진행되는 아급성기에는 다양한 보조기구의 적용 및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(내구연한 적용은 요양종결시 결정, 이후 기능상태가 변할 경우 다시 적절한 보조기구 선택 및 훈련하고 재결정 등의 과정 필요) ○ 보조기구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산재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 필요 - 재활특진 등을 통한 산재 소속병원에서의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, 산재 소속병원 요양급여 서비스는 강화하되, 불필요한 이종요양비 처리 등의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- 전반적인 수가 재산정 필요,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본인부담금제도 고려 - 물품별 특색에 맞는 관리 체계 수립 필요 (흉요추보조기 vs 의지, 활동형휠체어 vs 고도 중증장애를 위한 맞춤형 전동휠체어) -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던 보조기구 물건관련 수가들의 수요자 및 의료기관 중심 서비스로 개선 (요양급여 보조기구 수가,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-> 소속병원 요양급여) - 제작기사 관련 수가 신설 (재활센터장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 중) ○ 재활보조기구 처방/검수 체계 개선 - 현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보조기구의 세부지급범위가 결정되지 않고, 대략적인 해부학적 분류에 따라 환자군별로 균등한 금액보조정도에 그침 - 환자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들의 세부지급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검수 및 물품의 영수증뿐 아니라, 치료사, 보조기구 제작기사 및 공급자 등 보조기구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체계, 심사 구조의 개발, 각 직역별 전문가 육성 필요 ○ 보조기구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산재장애인들을 위한 Life-long 정책 수립 - 공단의 재활정책사업 및 소속병원의 특성화 진료 강화의 롤모델로 활용 - 상병별 합병증관리 및 특성화 건강검진 - 임대 기반 보조기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(전자제어식 의지 고려)

	○ 재활보조기 서비스 개선연구 설문조사(고객용) 개발 • 설문 문항은 수혜자 (산재 대상자) 중심의 내용 및 공급자 (주치의, 제작기사 등의 전문가) 중심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도록 구성하고자 함. 공급자 측면의 문항은 Focus Group Interview 등의 자문을 통하여 구성할 예정 • 1차 초안 문항에 대하여 재활공학연구소 제작기사 3인 (신무현, 양철호, 천성민) 검토 의견 수령하여 업데이트 필요함 • 증례수: 인천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 대상자 등 포함하여 약 100례 모집 예정 • 노동보험시스템 데이터와 매칭하여 통합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인천병원 IRB 승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제안 ○ 다음 회의 안건 및 일정 • 안건: IRB 승인 진행상황 공유, 소속병원 요양급여 운영방안 (요양기간, 구성 등) 논의 • 일정 및 장소: 6/8 (화) 오후 2시, 인천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 (신속대응반 과정 참관)
--	---